

2021년 비금융 상장기업 실적과 주요 산업의 업황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래금융연구실
2020. 12. 24

-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비금융 상장기업 매출액은 3.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

 - 1~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5.1%, 7.8% 감소하였으나, 4분기는 매출 감소세가 보다 완화되고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2021년은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하여 매출액이 7.7%(YoY)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1.7%(YoY) 늘어나 2017~2018년 반도체 호황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

 -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업종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매출액의 103%)으로 회복
 -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35%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지고,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3년간의 감익 추세에서 증가로 전환할 전망
- ①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IT, 헬스케어), ② 경기회복 수혜를 받으며(화학, 건설·건자재, 유통), ③ 재고부담이 경감된(자동차, 디스플레이, 해운) 업종이 2021년 기업실적 개선을 견인
-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위기와 달리 IT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마련된 계기가 되었고, 전통 제조업의 경우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원가구조가 개선되는 구조조정 효과도 존재
- 금융회사는 산업구조 개선에 따라 기업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한 자금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작성자: 김수진 연구위원 (02-2173-0570)
 성지영 책임연구원 (02-2173-0561)
 책임자: 권우영 실장 (02-2173-0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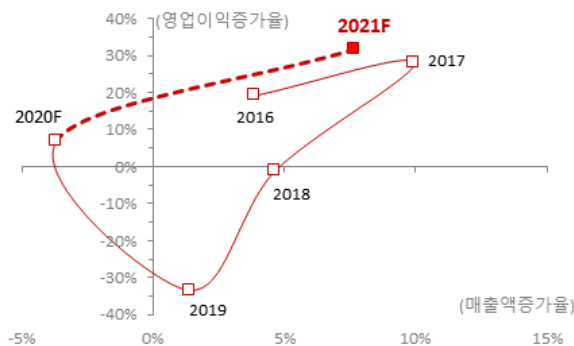
1. 2021년 비금융 상장기업 실적 전망

- 금융업종을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기업 중 2018년 이후 분기와 연간 실적을 발표한 1,743개(유가증권시장 676개, 코스닥 ,1067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기업실적 추정 모델을 이용하여 9개 대분류 업종, 47개 세부 업종의 실적을 추정(붙임2 참고)

■ 3년간의 실적 부진에서 탈피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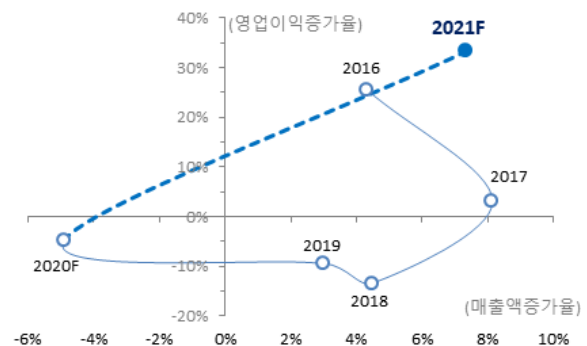
- 2021년 비금융 상장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2,390조원으로 7.7%(YoY) 늘어날 전망
 - 전년도(*Box 참고)의 마이너스 성장을 만회하여 전체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매출액의 103%)으로 회복
- 영업이익은 31.7%(YoY) 증가하여 16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평균 영업이익률은 6.9%로 전년대비 1.3%p 상승
 - 상장기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2020년 영업이익의 35% 차지) 뿐 아니라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총 영업이익은 2017~2018년 반도체 호황기에 근접
 - * 비금융 상장기업 영업이익(조원) : '16년 139 → '17년 178 → '18년 176 → '19년 117 → '20년(F) 125 → '21년(F) 165
 - 반도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108조원, +33.4% YoY)은 3년간의 감익(感益) 추세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2017년(109조원)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상장기업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추이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반도체 제외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추이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Box] 2020년 실적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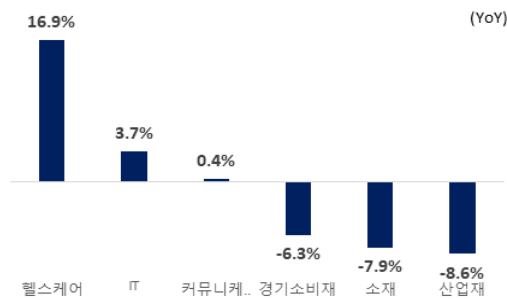
■ 2020.1~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5.1%, 7.8% 감소

- 분기별로 보면 매출액증가율은 1분기 0.6%에서 2분기 -12.2%로 반락한 이후 3분기는 -2.8%로 감소 폭이 축소
- 영업이익은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8%, 16.9% 감소하였으나, 3분기는 27.8% 증가로 전환
 - 코로나19 충격과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 영향
 - * 분기 영업이익률(%): (19.3Q) 5.4% → (19.4Q) 3.8% → (20.1Q) 3.9% → (20.2Q) 5.2% → (20.3Q) 7.1%

■ 2020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은 3.7%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할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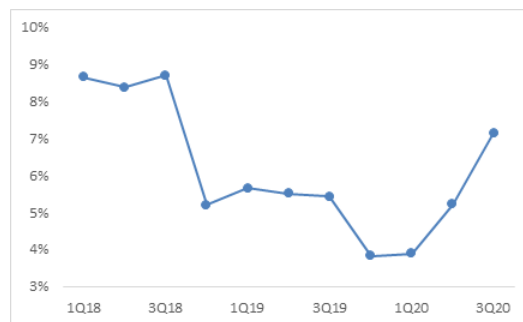
- 4분기는 매출 감소세가 보다 완화되고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간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4분기 전망(YoY) : 매출액 -0.3%, 영업이익 62.0%, 영업이익률 6.2%(+2.4%p)
 - * 주요 관리비용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상 4분기 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

2020.3분기 누적 매출액증가율



자료: 쿼티와이즈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쿼티와이즈

■ ①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IT, 헬스케어), ② 경기회복의 수혜를 누리며(화학, 건설·건자재, 유통), ③ 재고부담이 경감된(자동차, 디스플레이, 해운) 업종이 2021년 기업실적 개선을 견인

* 세부업종별 실적은 붙임2 참고

① 디지털 전환, 비대면 확산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IT 업종과 코로나19의 반사이익을 받는 헬스케어 등의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세가 확연

-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전자장비·기기, 제약·바이오, 미디어·엔터·게임은 2020년 이후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며, 2021년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2020~2021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cagr)은 소프트웨어 16.3%, 제약·바이오 13.3%, 미디어·엔터·게임 9.1%, 반도체 7.5%, 전자장비·기기 6.9% 순으로, 상장기업 전체 평균 성장률 1.8%를 크게 상회

② 경제활동 정상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화학, 건설·건자재, 유통은 2020년 수요 감소의 충격을 만회할 전망

* 화학, 건설·건자재, 유통 모두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보다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각각 2019년의 1.56배, 1.13배, 1.01배 수준으로 회복

③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위기와 달리 공급과 수요 양방향 충격을 야기한 가운데, 재고감축 효과가 컸던 자동차, 디스플레이, 해운 등은 ASP(평균판매단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임

* 2019~2021년 연간 영업이익률(%): (자동차·차부품) 3.8 → 2.9 → 4.7, (디스플레이) -1.9 → 1.2 → 3.0, (해운) 0.4 → 12.2 → 11.0

■ 반면 항공, 호텔·레스토랑·레저와 정유 등은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을 밀도는 부진이 이어질 전망

• 2021년 매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항공, 호텔·레스토랑·레저, 정유, 방송·엔터테인먼트는 매출액 규모가 2019년 수준을 10% 이상 하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항공, 호텔·레스토랑·레저, 정유 방송·엔터테인먼트 업종의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20%, 30%, 12%, 1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나, 2020년 급감한 매출을 만회하기에 부족

* 항공(2019년 매출액의 62% 수준), 호텔·레스토랑·레저(72%), 정유(84%), 방송·엔터테인먼트(89%)

- 그 외 섬유·의류·신발, 통신장비, 화장품의 경우 급감했던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제품가격 하락과 부품단가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2021년 추정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

주요 업종별 2021년 실적 추정

(단위: %)

업종	매출액증가율(YoY)		영업이익증가율(YoY)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비중*
	2020F	2021F	2020F	2021F	2020F	2021F	
IT	4.8	9.6	37.1	28.1	11.0	12.8	42.7
반도체(장비·부품 포함)	5.3	9.8	37.5	28.6	15.3	17.9	34.5
소프트웨어	17.6	15.0	27.6	3.8	10.5	9.5	2.3
디스플레이(장비·부품 포함)	4.6	8.3	-165.4	176.5	1.2	3.0	0.8
산업재	-7.9	6.1	-15.3	34.8	3.7	4.6	15.9
건설·건설자재	0.5	4.7	7.0	5.3	6.6	6.6	4.8
기계	-5.1	4.0	-26.5	17.7	4.4	5.0	1.6
조선	-1.3	0.5	98.3	139.9	0.9	2.2	0.5
항공	-48.2	20.0	-4.6	적자지속	-10.0	-3.5	-0.3
경기관련소비재	-4.2	9.4	-30.8	60.3	3.2	4.7	13.8
자동차·차부품	-2.8	10.7	-24.3	75.1	2.9	4.7	9.0
유통	-0.2	5.7	-26.8	37.4	2.4	3.1	1.5
화장품	-10.7	7.5	-21.9	12.4	7.9	8.3	1.3
섬유·의류	-8.3	5.0	-27.0	11.8	4.9	5.2	1.2
소재	-5.4	6.9	4.9	22.9	4.8	5.5	10.6
화학	-2.2	12.0	30.6	19.3	5.4	5.8	6.3
철강	-11.2	5.8	-32.6	51.7	3.2	4.6	3.0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8	8.9	16.3	9.9	8.6	8.7	5.3
통신서비스	1.6	4.0	15.8	-3.4	6.1	5.7	2.0
미디어·엔터·게임	2.3	16.5	16.6	20.1	12.5	12.9	3.3
필수소비재(음식료 등)	4.2	2.9	25.4	-16.6	5.8	4.7	3.5
유틸리티	-6.3	1.0	467.5	-3.2	5.3	5.1	3.2
헬스케어	16.2	9.0	103.8	5.3	11.0	10.6	2.9
에너지(정유 등)	-25.3	12.1	-153.5	흑자전환	-2.6	3.3	2.1
상장기업 전체	-3.7	7.7	6.8	31.7	5.6	6.9	100%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쿼티와이즈(업종은 쿼티와이즈 WICS분류 기준)

* 2021년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 추정금액 대비 업종별 영업이익 비중

2. 주요 산업별 업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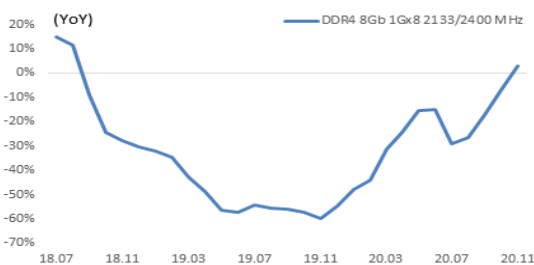
- * 2021년 비금융 상장기업 합산 매출액 중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3% 이상을 차지하는 매출 상위 7개 업종
-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항공 업종 추가

업종	반도체	자동차	화학	건설	철강	정유	유통	항공
전망 (매출비중)	(13.3%)	(13.3%)	(7.5%)	(5.0%)	(4.5%)	(4.4%)	(3.3%)	(0.7%)

■ [반도체] DRAM은 공급부족으로 전환되어, 상반기 중 제품가격이 반등할 전망 (2021년 매출액 증가율 9.8%, 영업이익률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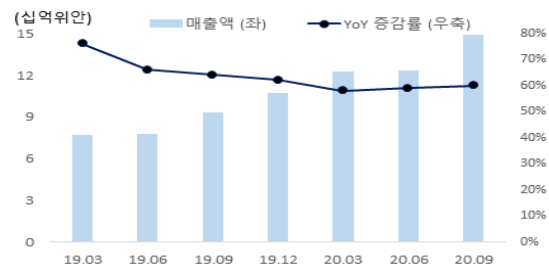
- 반도체 제조사들의 신규투자 억제로 DRAM 공급증가율(Bit Growth¹⁾)은 전년도(20% 수준) 대비 하락한 16%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
 - 반면 PC(인텔 신규 CPU 출시, IT기기 판매 증가), 서버(AWS, MS, 구글에 이어 중화권 업체들의 클라우드 경쟁 심화), 스마트폰(글로벌 판매량 회복) 등 전 부문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강세
 - * DRAMeXchange에 따르면 2021년 서버는 6.6%, 스마트폰과 노트북PC는 각각 12.6%, 2.5%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연평균 DRAM 가격증감률은 전년도 -18%에서 -1.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재고부담으로 2020.3분기 하락 반전한 DRAM 가격은 2021.1~2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나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하반기에는 전년도 고점(2분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DRAM 현물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알리바바 분기별 클라우드 매출액



자료: Alibaba

1) 비트(bit) 단위로 환산한 메모리반도체 생산량 증가율

■ [자동차] 글로벌 수요(Q)와 판매단가(P) 모두 개선되는 양호한 환경
(2021년 매출액 증가율 10.7%, 영업이익률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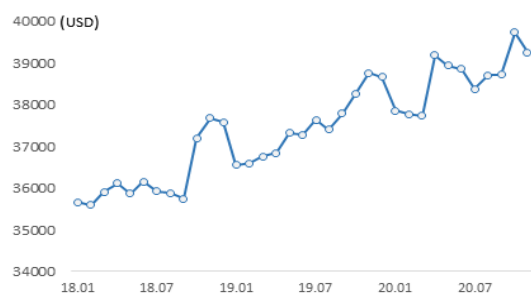
- 2021년 글로벌 신차 수요는 10%(YoY, 8천만대 규모) 증가할 전망
 - 미국, 유럽 모두 판매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특히 지난 3년간 수요 감소세가 이어졌던 중국과 인도는 V자 반등이 예상됨
 - * CPCA(중국승용차연석회의)는 2021년 중국 자동차 시장이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2020년 신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던 내수 시장(1~11월 누적 7.0%, YoY)은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2020년 말에서 2021.6월로 연장)로 2021년 판매량이 2%(YoY) 감소할 것으로 추정
 - 팬데믹에 따른 수요 급감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며 재고부담이 완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대중교통 기피와 해외 여행을 대체하는 국내이동 등으로 오히려 자동차 구매가 증가
 - * 미국 자동차 판매량 대비 재고비율은 2020.10월 기준 1.89로 2011~2019년 장기평균인 2.46을 크게 하회
-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전장기능 옵션 채택이 늘어나고, 판매가격이 높은 SUV 중심의 제품믹스 변화로 대당 판매가격 상승세도 지속
 - * 자동차 평가 업체인 Kelley Blue Book에 따르면 미국의 월평균 신차 판매가격은 2019년 2020년 각각 3.3%, 3.1% 상승

미국 자동차시장 월별 재고비율 추이



자료: FRED Database

미국 신차 평균 판매 가격 추이



자료: Kelley Blue Book

■ [화학] 수요 회복으로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고 수익성이 개선
(2021년 매출액 증가율 12.0%, 영업이익률 5.8%)

-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제품²⁾ 구매가 지속되고 중국,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부양책 효과로 가전과 생필품에 사용되는 에틸렌(대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크게 증가

- 산업의 성숙도가 높아 신규 수요 발굴이 어렵고 제품 소비량이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특성상, 2021년 세계 경제 회복(IMF 5.2% 성장 전망)에 힘입어 에틸렌 수요는 6.5% 늘어날 것으로 예상

* ICIS³⁾는 2011~2019년 연평균 7백만톤 증가한 에틸렌 수요가 2021년에는 9백만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수요 개선에 따라 주요 제품가격(에틸렌 연평균 5% 상승 추정)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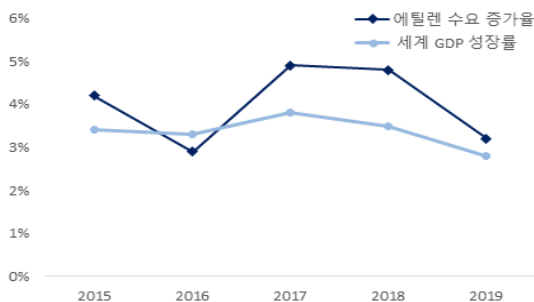
* 2019년 톤당 330달러에 거래된 에틸렌은 코로나가 발생한 20.1분기 238달러로 하락하였으나 2분기 이후 방역 제품 수요 확대로 가격이 상승하여 3분기 341달러

-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북미와 중국의 설비증설(연간 1천만톤 규모) 계획이 재개될 수 있어 공급부담이 가격 상승세를 제약할 가능성

- 화학제품 원재료인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스프레드(제품가격-원재료비용) 개선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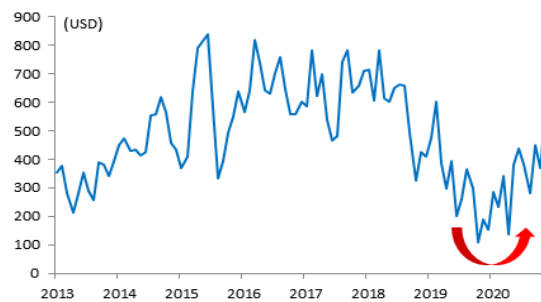
- 주요국들의 경기부양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나, 이란, 리비아 등 비 OPEC 국가의 증산 영향으로 2021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배럴당 44~49달러(+ 5~10달러/배럴, YoY)에 그칠 전망(EIA, IEA, OPEC 추정치 종합)

에틸렌 수요와 경제성장률



자료: IMF, Bloomberg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 [건설] 주택분양물량 증가로 성장세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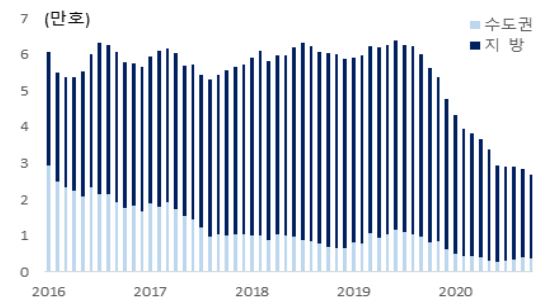
2) PP(폴리프로필렌; 마스크), 합성라텍스(의료용 고무장갑), IPA(이소프로판알콜; 손세정제), PE(폴리에틸렌; 택배 포장재) 등

3) ICIS(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는 글로벌 화학산업 전문 조사기관

(2021년 매출액 증가율 4.7%, 영업이익률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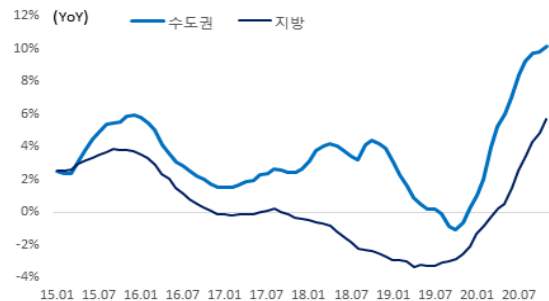
- 건설사 실적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주택 분양물량은 전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
 - 국내 분양물량은 2015년 최고점 이후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이후로는 30만세대 수준에서 등락
 -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주택 청약경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분양에 대한 대기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임
 - * 2020.9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전년동월 대비 50% 이상 빠르게 감소(수도권 -55%, 지방 -52%)
 - 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방사업장의 경우도 사업성이 개선되어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월별 미분양주택 수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60㎡~85㎡이하 면적)



자료: KOSIS

**■ [철강] 수요 증가와 원재료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
(2021년 매출액 증가율 5.8%, 영업이익률 4.6%)**

- 글로벌 철강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의 주택 건설과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수요가 4% 늘어날 전망
 - * WSA(세계철강협회)는 글로벌 철강수요가 '20년 -2.4%에서 '21년 4.1% 회복될 것으로 추정
 -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주택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내수시장의 전방수요도 양호
-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전년대비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로 업체의 마진이 대폭 개선될 전망
 - 자연재해 여파로 채굴을 중단하였던 발레 등 호주 4개사(발레, 리오틴토, B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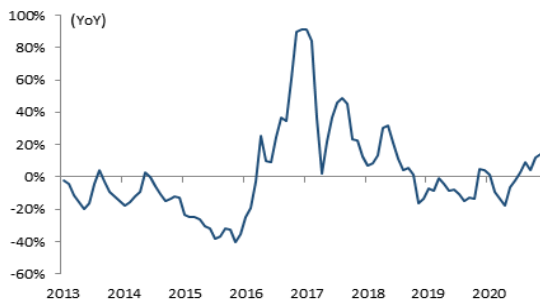
빌리톤, FMG)가 2021년 생산량을 올해보다 5천만톤 늘릴 예정(호주는 글로벌 철광석 생산량의 50%를 공급)

* 호주산업부는 2021년 철광석 가격이 톤당 57달러로 2020년 평균가격 대비 29%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국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무역확장법 232조 등) 등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 對美 수출 여건이 다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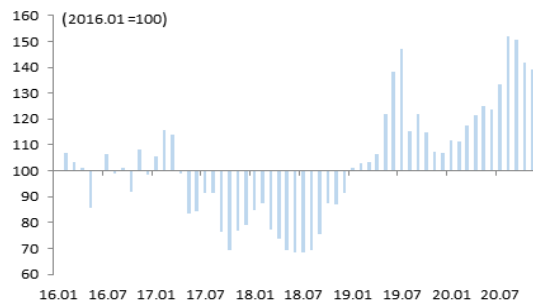
* 무역확장법 시행의 여파로 국내 강관제품(HS 730439 기준)의 2015년 5.5톤에 달했던 對美 수출물량은 2020년 11월(누적) 현재 820톤으로 급감

중국 열연제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중국 열연-철광석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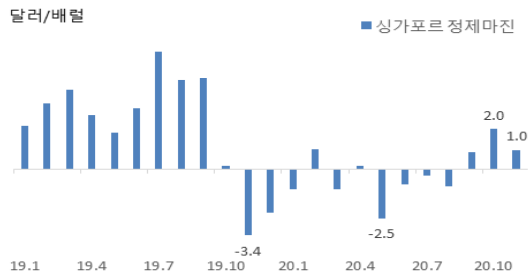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정유] 누적된 과잉설비 영향으로 정제마진 개선폭은 제한적 (2021년 매출액 증가율 12.1%, 영업이익률 3.3%)

- 2021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2020년 급감했던 가솔린 등 수송용 제품 수요가 6%(YoY) 이상 늘어날 가능성
 - * 가솔린(운송용), 항공유(등유) 수요는 글로벌 정유제품 수요의 38%를 차지
- 공급 측면은 원유 정제설비 증설량이 기존 계획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3년간 누적된 공급과잉 부담이 높아 정제마진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2018년 이후 매년 일평균 생산량 1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증설의 영향으로 누적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내 정유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두바이유를 도입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WTI 기반의 미국업체 대비 수익성 개선폭이 적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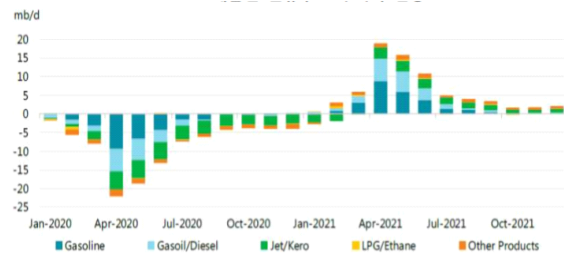
*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두바이유-WTI 가격 차이는 2020년 배럴 당 2달러에서 2021년 5달러로 상승할 전망

싱가포르 정제마진



자료: Bloomberg

석유제품별 수요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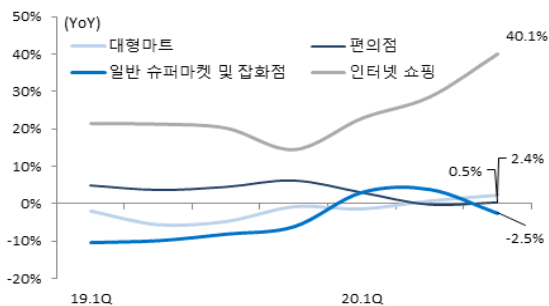


자료: IEA

■ [유통] 소비 회복으로 매출이 반등하고 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 만회 (2021년 매출액 증가율 5.7%, 영업이익률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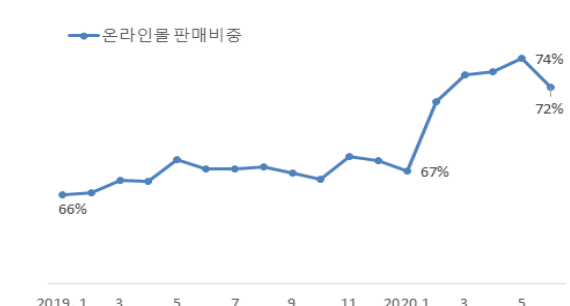
- 업태별로는 내구재 소비 증가와 신규 점포 개점으로 백화점 매출이 반등하고, 학교·학원 수업이 정상화 되면서 편의점 실적이 개선될 전망
 - * 현대백화점은 2020년 면세점 2곳, 아울렛 2곳 오픈, 2021년 백화점 1곳 오픈 예정
 - 대형마트는 식품 온라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매장 철수 등 구조조정으로 수익성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롯데쇼핑 기존점 50개 이상 폐점 진행, 롯데하이마트 점포수 전년대비 12개 축소
- 반면 최근 고성장을 이어온 온라인 유통업은 전통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비중 확대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될 전망
 - * 온라인 유통업체 침투율은 2019년 32%에서 2020년 39%, 2021년 43%로 전망
 - 쿠팡, 네이버로 이커머스 시장이 재편되면서 이마트등 전통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점포에 기반한 식품판매 중심으로 온라인시장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날 전망

업태별 판매액 증가율



자료: 통계청

소매판매 중 온라인몰 판매 비중



자료: 통계청

■ [항공] 여객 수요는 2019년의 30% 내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화물은 호황이 이어질 전망

(2021년 매출액 증가율 20%, 영업이익률 -3.5%)

- 전체 여객 수요(RPK⁴) 기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제선의 경우 2020년 90%(YoY) 급감했던 수요가 2021년 두배로 확대되어도 2019년의 30%를 밑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다만 국내선의 경우 2020년 하반기 이후 예년 수준으로 수요가 개선되었고, 해외 이동 수요의 국내 전환 등으로 2021년에도 20%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
 - * 국내선 월 이용객은 2020.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증가로 전환
- 항공화물은 화물기 공급은 제한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화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0년에 이어 운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하반기 홍콩-미국 간 평균 화물운임(홍콩 TAC 지수 기준)은 kg 당 5.75달러로 전년동기 3.52달러 대비 63% 급등한 수준
 - IATA(국제항공운수협회)는 2021년 항공화물 물동량(FTK⁵)이 전년대비 13.1% 증가하고, 운임 (yield)도 5.0%(YoY) 상승할 것으로 추정
 - 화물 실적이 없는 LCC와 달리 대형항공사(대항항공의 경우 2018~19년 항공 매출 비중은 총 매출액의 22%)는 화물 매출규모가 평년 수준의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객수요 부진을 일부 상쇄

항공사별 매출구조 비교(2019년 기준)

(매출액비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국내선	3.8%	8.0%	16.7%	18.1%	18.8%
국제선	57.4%	58.7%	74.1%	79.0%	74.1%
화물	20.2%	21.4%	0.0%	0.0%	0.0%
기타	18.6%	12.0%	8.5%	2.8%	7.0%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IR보고서, 2019년 실적 기준

3. 시사점

■ 2021년 비금융 상장기업 실적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회복되며 기업이익이

4) Revenue Passenger Kilometers : 유상 여객좌석수와 비행 구간 거리를 곱한 여객 수송실적

5) Freight Tonne Kilometers : 화물 무게와 실제 운송한 거리를 곱한 실제 화물 운송실적

크게 개선될 전망

-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나 수요 회복, 재고부담 완화, 원가율 하락 등으로 대부분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사태가 과거 위기와 달리 IT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마련된 측면이 있고, 전통 제조업의 경우 공급과잉이 해소되고 원가구조가 개선되는 구조조정 효과도 존재
- 금융회사는 산업구조 개선에 따라 기업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부문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한 자금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

붙임1 | 업종별 코로나19 전(2019)·후(2021년 추정) 실적 비교6)

- 2021년 추정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업종은 게임(2019년 매출액의 144%), 소프트웨어(135%), 제약·바이오(128%), 반도체(114%), 디스플레이(113%) 순
 - 매출액이 크게 개선된 반도체·반도체장비, 게임, 디스플레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대비 4.7~6.2%p 상승할 것으로 추정

코로나 이전 대비 실적개선 업종

매출액 수준			수익성 수준(영업이익률 변화)		
순위	업종	2019 대비	순위	업종	2019 대비
1	게임	144%	1	반도체(장비·부품 포함)	6.2%p
2	소프트웨어	135%	2	게임	4.9%p
3	제약·바이오	128%	3	디스플레이(장비·부품 포함)	4.8%p
4	반도체(장비·부품 포함)	114%	4	제약·바이오	4.7%p
5	디스플레이(장비·부품 포함)	113%	5	유틸리티	4.2%p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쿼티와이즈

* 2021년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위 5개 업종

- 2021년 추정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을 10% 이상 하회하는 업종은 항공 (2019년 매출액의 62% 수준), 호텔·레스토랑·레저(72%), 정유(84%), 방송·엔터테인먼트(89%)

코로나 이전 대비 실적악화 업종

매출액 수준			수익성 수준(영업이익률 변화)		
순위	업종	2019 대비	순위	업종	2019 대비
1	항공	62%	1	호텔·레스토랑·레저	-8.4%p
2	호텔·레스토랑·레저	72%	2	방송·엔터테인먼트	-1.7%p
3	정유	84%	3	섬유·의류·신발	-0.9%p
4	방송·엔터테인먼트	89%	4	통신장비, 화장품	-0.7%p
5	-	-	5	정유	-0.4%p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쿼티와이즈

* 2021년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19년 대비 10% 이상 축소된 감소폭 상위 5개 업종

6) 세부 업종 중 2019~2020년 평균 매출액이 10조원 이상인 업종으로 국한

붙임2

세부 업종별 2021년 실적 전망

업종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
	(십억원)	(YoY)	(십억원)	(YoY)	
IT	550,083	9.7	70,384	28.1	12.8
반도체(장비·부품 포함)	317,578	9.8	56,825	28.6	17.9
전자제품	69,210	7.0	3,668	14.8	5.3
디스플레이(장비·부품 포함)	45,320	8.3	1,343	176.5	3.0
소프트웨어	39,772	15.0	3,779	3.8	9.5
전자장비와기기	34,050	7.5	2,315	17.3	6.8
핸드셋	16,098	3.0	644	62.2	4.0
전기제품	19,486	16.5	1,461	46.6	7.5
통신장비	6,847	17.0	329	298.8	4.8
컴퓨터와주변기기	1,267	3.0	13	-7.4	1.0
산업재	562,964	6.1	26,177	34.8	4.6
복합기업	196,296	7.0	9,815	78.5	5.0
건설·건축재	119,005	4.7	7,896	5.3	6.6
기계	51,532	4.0	2,577	17.7	5.0
무역회사와판매업체	41,030	4.8	821	8.2	2.0
조선	38,735	0.5	852	139.9	2.2
항공화물운송과물류	36,570	11.5	1,463	21.7	4.0
전기장비	25,203	4.0	907	12.6	3.6
항공	15,935	20.0	-558	적지	-3.5
우주항공·국방	11,310	12.0	509	9.5	4.5
해운	10,658	7.5	1,172	-3.0	11.0
상업서비스와공급품	8,459	1.8	448	-6.0	5.3
가구	4,767	3.0	167	-22.3	3.5
도로와철도운송	2,934	7.5	123	14.9	4.2
경기소비재	483,557	9.4	22,668	60.3	4.7
자동차·차부품	318,011	10.7	14,794	75.1	4.7
유통	79,489	5.7	2,436	37.4	3.1
섬유·의류·신발	37,918	5.0	1,972	11.8	5.2
화장품	25,211	7.5	2,093	12.4	8.3
가정용기기·용품	9,850	8.3	1,182	8.7	12.0
호텔·레스토랑·레저	8,701	30.0	0	적지	0.0
교육서비스	3,203	5.0	160	149.2	5.0
소재	315,771	6.6	17,504	22.9	5.5
화학	179,955	12.0	10,437	19.3	5.8
철강	108,514	5.8	4,992	51.7	4.6
비철금속	19,204	8.3	1,402	5.7	7.3
포장재	8,729	1.0	698	11.8	8.0
필수소비재	121,718	2.9	5,702	-16.6	4.7
식료·음료·담배	113,920	3.0	5,468	-17.5	4.8
식품과기본식료품소매	6,716	2.0	168	17.7	2.5
가정용품	1,082	3.0	66	4.1	6.1
유틸리티	103,980	1.0	5,303	-3.2	5.1
에너지	106,677	12.1	3,501	흑전	3.3
정유	105,987	12.2	3,498	흑전	3.3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00,606	8.7	8,777	9.9	8.7
통신서비스	58,512	4.0	3,335	-3.4	5.7
게임	13,018	18.0	2,473	12.3	19.0
양방향미디어	12,173	24.0	2,045	20.3	16.8
방송·엔터테인먼트	11,090	10.0	444	146.2	4.0
광고	5,566	12.0	440	8.3	7.9
헬스케어	44,960	9.0	4,786	5.3	10.6
제약·바이오	40,699	8.7	4,260	3.5	10.5
건강관리장비·서비스	4,260	12.4	526	22.5	12.4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추정